



제17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가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열렸다.

“너희는 세상의 빛” 사랑의 캠프로 장애인 섬겨

미주 밀알선교단이 올해도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미주 밀알은 매년 여름 남가주,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 밀알 등 서부 지역 연합으로 사랑의 캠프를 연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UC산타바바라 캠퍼스에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Let's See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애인과 봉사자를 포함해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캠프부터 실시한 세족식이 이번에도 남가주 밀알 이사장 남성수 목사의 인도로 첫날 거행됐다. 밀알 측은 “봉사가 장애인의 발을 손수 닦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는 공동체적 사랑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둘째날에는 “World Travel”이란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중국, 멕시코, 한국, 미국 등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있었다. 교회 연합 찬양선교팀 PPOG가 찬양으로 이 행사를 섬겼고 청년자원봉사팀 TRAC도 다양한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해 봉사했다. 김준형 기자

“우리에게겐 절망이지만”

동성결혼 합법화 후 한인 목회자들 반응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한인교회는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6월 26일 연방대법원의 발표 이후, 한인 목회자들은 28일 주일예배에서 이 문제를 “큰 충격”이라 했지만 희망을 잃지는 않았다.

먼저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이 야만족에 의해 멸망당하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 기록했다. 로마가 야만족에 의해 정복 당한 줄 알았는데 로마를 정복한 야만족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정복 당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세상은 극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도,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자”고 도전했다.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는 “인권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염려된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글을 통해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대부흥을 주실 것”이라면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도 절벽을 만나면 웅장한 폭포가 된다. 이제 주님께서 미국을 기적처럼 살리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교계에서는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시대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날 것”이라 했고 러셀 무어 목사는 “지금은 분노하거나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교회의 비전을 더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그 가족들

미주 예성 목회자 가족 힘내세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미주총회 서부지방회(회장 김재임 목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15년 목회자 평생교육 및 가족 수련회”를 라스베가스에서 50여 명의 목회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 수련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됐다.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와 기도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선후배 간의 끈끈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었다.

수련회 주강사는 남가주벨렐교회 오병의 목사였다. 그는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능력있는 무기”라고 말하면서 총 4번의 강의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원리, 복음의 능력, 복음과 세계 비전, 행복 모임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이종원 목사 가족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특히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전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Assistance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운동으로 땀 흘리며 연합의 땀도 함께”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로 연합 체육대회



이 대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운동을 통한 연합과 동역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들이 연합의 땀방울로 하나됐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교계 연합 체육대회가 총14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7일 토요일 세리토스 소재 벨리크리스천하이스쿨에서 열렸다.

주 종목인 족구에서 1등은 LA연합팀, 2등은 OC연합팀, 3등은 벤추라연합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은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박재만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풀러신학교 유학생팀, 벤추라 지역 새생명교회(승광철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어린이들을 위해 달리기 시합도 벌어져 100미터 1등을 케빈 장군(남가주순복음교회)이 차지했고,

이 대회와 함께 열린 어린이 사생대회에서는 신건호 양(은혜한인교회)이 수상했다.

이 행사를 위해 OC교협과 OC목사회가 후원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기를 위해 LA족구협회가 협력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윤우경 집사(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회장)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재필 목사(OC목사회장)가 대표기도, 김기동 목사(OC교협회장)가 말씀, 김종대 장로(OC장로협의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윤 집사는 “연합 사역이 날로 쉽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교회와 성도, 선교 단체들이 꾸준히 협력해 연합 전선을 세워 나간다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가수 윤행주 장로의 “나의 예수님 이야기”

새생명비전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ANC온누리교회 등에서 집회

문화 선교사나 다름없는 윤행주 장로가 오랜만에 남가주를 찾았다. 지난 6월 26일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집회를 시작으로 27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8일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를 각각 돌며 자신의 노래와 음악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했다.

윤행주 장로는 이 집회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담대하게 전달했다. 중간 중간 자신의

히트곡인 조개껍질 묶어, 하얀 손수건 등과 우리 귀에도 익숙한 히트시엠송, 6촌 재종형제인 민족시인 윤희동 시인의 시를 노래한 ‘두 개의 작은 별’ 등을 곁들이며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친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했다.

특별히, 불교문학가로 유명했던 故 미당 서정주 선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천하기까지 대물림하며 기도해 온 이야기와 1970년대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 구치소 수감 중 만났던 예수님이 어떻

게 자신에게 새 생명의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집회 2주 전에 갑자기 소천하신 뉴저지 거주 모친 이야기를 전할 때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집회 후에는 윤 장로 사인회가 이어졌는데, 이 집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현재 윤 장로가 펼치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 환자 돕기 및 장애인 돕기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후원 문의는 전화(한국 02-521-1141)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하소서”

사랑의 띠선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사랑의 띠선교회(담임 김천환 목사) 창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6월 25일 오후에 이 교회 본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천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임상철 목사(뉴비전생명교회) 기도, 카이로스선교회(대표 김민경 선교사) 몸찬양, 한국엘림장애인선교회 소개, 김성희 목사(하와이갈보리선교회) 설교, 이웅 목사(순전한교회) 격려사, 고창수 목사(엘림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희 목사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왕상 18:41-45)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성경 속의 엘리야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축복의 큰 비 소리를 들었다. 사랑의 띠선교회가 지난 16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 미주 엘레이지부를 섬길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하며 더 많은 영혼 구원에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환 목사는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

을 잊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한,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26회 장애인 산상 대성회’ 미주대표로 참가하게 될 김천환 목사를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한국 엘림장애인선교회는 한국의 470만에 달하는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 지난 1984년 4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로 엘레이지부를 비롯, 하와이, 뉴욕 등지에 해외 지부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 기술 교육, 재활 교육을 비롯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영성 훈련도 함께 펼쳐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1회 7-8월 경 ‘장애인 산상 대성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로 26회째이며 경기도 포천시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오는 7월 20일-24일까지 열린다. 이 성회에는 장애인 2천여 명이 초대되며 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213-736-6625(김천환 목사)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청년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갈보리믿음교회, 김형국 목사 초청 부흥회 열어

갈보리믿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본국의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담임)를 초청, ‘청년의 신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흥집회를 가졌다.

김형국 목사는 28일에 계속된 주일 1부 예배에서 ‘예수, 생명의 밥’(요6:33-35)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밥상의 주인은 밥이다. 반찬이

아무리 많아도 밥맛이 없으면 절대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없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다. 설교는 예수를 가르쳐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 반찬적인 온갖 프로그램들만 난무하고 있다”며 “십자가 대속의 살리는 밥,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밥, 살아있는 밥, 생명의 밥인 예수

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예수의 힘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형국 목사는 트리니티신학대학 출신의 신약학 박사로서 본국 나들목교회를 담임하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청년아 때가 왔다’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한인기독합창단 제56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이 제56회 정기 연주회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란 주제로 6월 28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찬송가 위주였다. 다 감사드리세,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햇빛을 받는 곳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음성

외에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산마다 불이 탄다, 어서 돌아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한인들이 사랑하는 명곡 찬송가들이 연주됐다. 지난해 12월 제5대 지휘자에 취임한 이경원 지휘자는 “찬송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뼈 아픈 삶을 살아내며 뱉어낸 신앙의 고백”이라며 “이것은 우리도 삶을 녹여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히 피아니스트 이지은과 올게니스트 석기향, 소프라노 최정원, LA 신포니에타 브라스 앙상블도 참여해 더욱 무대를 빛냈다.

이 합창단은 1984년 남가주 교회 음악의 발전과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창단돼 30년 동안 55회의 정기연주회, 20회의 교회 순회 연주회, 10회의 특별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GOD'S IMAGE 지부를 얼바인아름다운교회에 설립하기 위한 공연이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시켜줄 수 있는 CONCERT입니다

GODS IMAGE ministries

COMING TO IRVINE BEAUTIFUL CHURCH

SUNDAY | FREE ADMISSION
 JULY 12 2015 | 17702 COWAN, IRVINE, CA, 92614
 2:00 PM | CONTACT: (949) 250-1111

GOD'S IMAGE 공연팀의 오디션이 있으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AUDITIONS COMING SOON



남가주목사회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예배를 6월 25일 저녁 한미장로교회에서 드렸다.

“고귀한 희생 잊지 말자”

남가주목사회 6.25 기념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가 6.25 전쟁 65주년을 맞아 기념 추모예배를 드리고 참전용사와 유가족,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업무서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이운영 목사(한미장로교회)는 “6.25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시119편67-71절)”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牧사는 “우리 조국은 6.25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넘치는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6.25 65주년을 맞이해 우리는 선조들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회장은 기념사에서 “조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성장과 자유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 또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이뤄질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김기동 OC교회회장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안 된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빛진자의 심정으로 희생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강부용 목사, 배수호 목사, 강지원 목사, 데이빗 리 목사, 류당열 목사, 김재울 목사, 정종윤 목사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김준형 기자

“영혼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새 예배당 입당 예배 드려



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새 예배당에 입당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김성일 목사가 인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예배당을 구입해 이전하고 한 차원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2002년 6월 김성일 목사가 빅토빌에 개척한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계선교에 노력해 왔지만 최근 예배당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애플밸리 지역에 1에이커 부지와 자체 예배당을 구매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새

예배당에서 드린 입당예배에는 그동안 김성일 목사의 헌신적 교회 연합 사역과 교회의 적극적 지역사회 섬김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많은 인파가 참석했다.

찬양 인도는 이용욱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를 중심으로 한 8090찬양팀이 맡았고 서철원 목사(얼바인헤브론교회)가 대표기도 했다. 마원철 목사(리퍼어서번트 대표)가 “주님이 흘려 가신 그 길” 특송을 한 후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영 목사(빅토밸리한인목사회 회장), 원사라 동문회장(국제개혁대 신대원 총동문회), 유영택 선교사(C국), 고승경 목사(빅토빌중앙장로교회)와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가 축하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광수 목사(IMF선교회)가 축도했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식탁 교제에서는 성은경 목사(실로암선교회)가 기도했다.

김성일 목사는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자체 예배당을 구입해 이전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교회로서 빅토밸리 복음화와 다민족 세계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주소) 15860 Tao Rd. Apple Valley, CA92307 주일예배 시간) 오전 8시, 11시, 오후 1시 30분 웹사이트) www.jesusmind.net 전화) 760-220-3263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에 KPCA 교회들 “폭풍 후원”

나성영락 이어 웨스트힐 · 주님세운교회 등



이상명 총장(좌)이 박성규 목사(우)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가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와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로부터 각각 3만 달러의 후원을 받았다. 최근 이 학교는 나성영락교회로부터도 총 6만 달러를 받는 등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소속 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고 있다.

지난 6월 15일에는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25일에는 웨스트힐장로교회 김인식 목사를 대신해 전용기 장로가 각각 학교를 방문해 기금을 전달했다. 박성규 목사는 이 학교의 현 이사장이며 김인식 목사는

직전 이사장이다. 이 학교는 ABHE 정회원회와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상태로, 다세대 신학 교육이란 비전 아래 노력 중이다. 대다수의 한인 신학교들이 1세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 학교는 1.5세와 2세까지 다세대가 공부하는 학교로 거듭나 미주한인교회의 차세대 사역 발전과 세대간 연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명 총장은 6월 29일부터 약 한달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놀워한인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

놀워한인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장로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를 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준비위원장 김영수 장로 드림



김병호
장로임직



김진순
명예권사 추대

일시: 2015년 7월 12(주일) 오후 4시
장소: 놀워한인교회(담임목사 허귀암 Rev.Dr.Peter Huh)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주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전화: (714)308-7308



5Fwy South를 타고 오실 때는
Norwalk Exit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닫혀 있으므로
Imperial Exit에서 미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종교자유 운명은?

동성결혼 반대, '말'로는 가능하지만 '행동'은 언급 없어 혼란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5대 4의 판결로 미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지금까지는 워싱턴DC와 3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였으나 이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들은 미국 내 어디서든지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관계를 정부에 등록,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 판결 전 아칸소·미시시피·사우스다코타·네브라스카·텍사스 등 5개 주는 항소법원에 이 문제를 올린 상태였고, 앨라배마·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건·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테네시 등 9개 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

케네디 대법관 "헌법은 동성결혼 권리를 허락한다"

찬성 판결문은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했다. 연방대법원 내에서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그는, 진보적인 대법관 4명과 함께 동성결혼 찬성에 섰다.

그는 "결혼은 사랑과 충실·헌신·희생과 가족에 있어 가장 높은 이상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보다 중대한 결함은 없다"며 "이번 소송의 탄원인은 결혼은 죽은 후까지도 계속되는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그들의 소망은 비난받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 동일한 존엄을 요청했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 권리를 허

락한다"고 했다.

로버츠 대법관 "수정헌법에 명시된 권리 크게 침해"

그러나 반대 의견을 밝힌 존 로버츠 대법관은 "이 결정은 헌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당신이 혹시 동성결혼을 확장하는 데에 찬성한다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을 기뻐하고 (동성) 파트너에 대한 헌신에 있어 새로운 표현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고 새로운 혜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나 헌법을 기뻐하진 말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그는 특히 종교자유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오늘의 결정은 종교자유에 있어서 심각한 질문을 야기한다. 다수의 훌륭한 고예의 바른 사람들이 신앙적 교리를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성결혼의 권리와 달리 종교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이라고 구분하며, 이 판결이 종교적 실천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크게 우려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판결문에서 "종교인들은 거룩한 교훈에 의거해 신실한 확신을 갖고 '동성결혼은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고 옹호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기관이나 종교인이 살고 신앙, 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가족 구조를 계속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해 준다"고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여기서 케네디 대법관은 옹호(advocate)와 가르침(teach)이란 단어를 사용했지 실천(practice, exercise)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즉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런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기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불길하게도 이 판결은 '신앙적 실천'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앙인들이 종교(의 가르침)를 실천하고자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앙인들은 오늘 판결에서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종교적 대학에서 이성 커플에게만 제공하던 가족 숙식을 동성 커플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 종교적 기반의 입양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허가해야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어 "법무차관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면세 혜택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고 말했다.

클러런스 토마스 대법관도 "오늘 판결은 우리나라가 보호해 온 종교자유를 위협한다"고 개탄했고, 앤토닌 스키리아 대법관도 "매우 경악스러운 것은, 오늘의 법적 반란에 반영된 자만심"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 4명의 대법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작성하는 등, 흔하지 않은 격한 양상을 띠었다. 김준형 기자



에스떼 송 디렉터와 카니 정 조 소장이 6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백팩 드라이브에 관해 설명하며 한인들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한인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새 학기" 선물

한인가정상담소 백팩 드라이브 300세트 목표로 진행

"한인들의 따뜻한 정을 책가방에 가득 담아 주세요."

새 책가방에 새 학용품이 가득 차서 희망과 함께 선물할 후원자들을 한인가정상담소가 기다리고 있다. 가정폭력을 포함해 한인 가정의 아픔을 보듬고 나누는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탁가정 어린이들에게 개학을 앞두고 새 책가방과 새 학용품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은 여러가지다. 50달러를 한인가정상담소로 후원하면 상담소에서 25달러 책가방과 25달러 어차 학용품을 구매해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후원자가 직접 가방과 학용품을 구매해서 상담소 측에 기부할 수도 있다. 학용품 목록은 펜,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링 바인더, 자, 가위 등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지정한 것들로 구성된다.

에스떼 송 디렉터는 "새 학기가 되었지만 너무 낡은 가방에 학용품도 준비하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친구들로부터 무시 당하거나 심지어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고 우려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돌봄과 사랑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올해의 목표는 300세트다. 현재 코비나 시에 위치한 LA카운티 아동보호국에 속한 위탁 한인 어린이는 약 6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백팩 드라이브의 후원물품들은 한인 어린이를 포함해 아시안 어린이들에게까지 전달된다. 지난해 처음 한인가정상담소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 100세트를 목표로 백팩 드라이브를 추진했으나 무려 336세트의 책가방과 학용품이 모인 바 있다. 올해는 아예 300세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들이 따뜻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자랑스럽다"면서 "지나해에는 '100세트 목표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인들의 따뜻한 정으로 300세트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송 디렉터는 "모금 형식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와 함께 직접 책가방과 학용품을 구매해 기부하시면 그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백팩 드라이브에 참여하고 싶다면 7월 31일까지 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CA90020로 수표를 작성해서 한 세트 후원에 50달러를 보내면 된다. Pay to the Order에는 KFAM이라 쓰고 메모에는 Backpack Drive라 쓰면 된다. 웹사이트 www.kfamla.org에서 크레딧카드를 이용해페이팔로 결제할 수도 있다.

문의) 213-235-4849
 rkim@kfamla.org
 김준형 기자

기독교인과 교회 보호에 정치권 부심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을 거부하라"고 밝혔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6월 28일 주일 덴 패트릭 부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운티 사무관들과 직원들, 판사들과 치안 판사들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자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 또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무시했다. 참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이들에게, 이런 법을 무시한 판결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져다 준다"고 언급한 후 "판사와 치안판사들은 종교자유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들의 종교

교적 신념에 반하여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종교적 반대 입장을 지키고자 하거나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서기관들은 고소나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를 준비하고 있다. 나도 법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텍사스 지부 관계자는 "종교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는 불가침의 권리이지만 정부 관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결혼 관련 법을 거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지난 11일 목

회자 보호법(Pastor Protection Bill)인 SB2065가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 바 있다. 이 법은 목회자나 교회, 종교기관들이 신앙 양심을 어기며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연방 차원에서 대척이 준비 중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공화)과 라울 레브라도 하원의원(아이다호, 공화)은 공동으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First Amendment Defense Act, S.1598, H.R.2802)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전통결혼을 지키려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제이 그레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표한 상태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혜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UCS 신학대학교 확장 이전감사기념

선교사 가족을 위한 Blessing Night

저희 UCS 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번 새로운 장소로 확장 이전하여 이전감사예배와 더불어 복음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및 UCS동문들을 초청하여 뜻 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일 시 : 2015년 7월 11일(토) 오후 5시~8시
- 장 소 : UCS 신학대학교 대강당(아래 주소 참조, T.213-598-3146)
- 초청대상 : 선교사 30가정(선착순), 현직 및 안식년 선교사 가정
- 접 수 : 이메일 접수(ucsuniversity@gmail.com) 및 전화 접수(213-434-1083), 7월 5일까지
- 주 최 : UCS 신학대학교(총장 최아브라함 박사)
- 협 찬 : UCS선교팀,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찬윌리
- 특별찬조 : 풀러신학교 웨퍼드 파이어(지위:김한나 사모)

총장/최아브라함 박사
(UCS 신학대학교)

명예총장/김여진 박사
(UCS 신학대학교)

총괄진행/강양규 교수
(남가주세원교회 담임)

설교/최한오 목사
(전 파라과이 선교사)

격려사/정시우 목사

축사/홍준만 목사

UCS University of California

<http://ucsuniversity.org> Email: ucsuniversity@gmail.com

3130 Wilshire Blvd, #2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598-3146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입니다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던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M3® 세트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제품소개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콩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편을 가집니다.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e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MEGA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질,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평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B는 베타,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포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포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든 흥소핑	714.496.7887	뉴욕,뉴저지	201.983.8333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론 캘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기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韓城)	224.406.0337
올림픽캘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논웨이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남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아약국 (세인트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업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6기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셔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든 내셔널영양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뉴서울호텔 (팔방)	213.386.5310	플러든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렌스	213.268.0844		

‘동성애 조장 저지’ 보루에 선 기독교인들

대한문 앞 광장과 시청역 일대 운집, 쿼어 퍼레이드 규탄



동성애 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6월 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곳에서 약 2시간 가량 행사를 연 뒤, 청계광장과 삼일교에 이르는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주변에는 반대 집회도 거세게 일어났다. 대거 투입된 경찰은 서울광장 출입을 통제하며 흑시모를 충돌에 대비했다. 반대 집회는 동시다발적이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린 것은 대한문 앞 광장에서의 ‘동성애 조장 중단 촉구 교단 연합 예배 및 국민대회’였다. 참석자들이 이곳 광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방향 지하철 시청역 출입구 일대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집회는 1부 식전행사, 2부 예배, 3부 국민대회 등으로 진행됐

다. 예배는 서안식 목사(기하성 서대문 총회장)의 기도, 김희신 목사(공동대회장)의 성경봉독, 최낙중 목사(예장 백석 증경총회장)의 설교, 주제기도, 김동권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또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인사말을 전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이영훈牧사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 어떤 것에도 반대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

다”고 전했다.

이어 설교한 최낙중 목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나라가 침몰한다.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 땅에 동성애 확산을 막고 조국을 구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3부는 대국민 메시지와 공연, 구호제창, 주제 및 합심기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넘어 순교의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누군가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도와 주려는 것이다. 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외쳤다.

김진영 기자

제6회 살롬나비 워크숍 개최

한국교회, 2030년경 초대형 교회 부도 예상돼

‘살롬을꿈꾸는나비행동’(살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주최한 제6회 살롬나비 워크숍이 ‘회고와 전망 -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서 김성봉 목사는 ‘10년 후 한국의 교회와 종교’라는 특강에서, 한국교회의 현 모습은 명백한 위기라고 진단한 후 ‘빠를 깎는 듯한 자성’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김 목사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인용하며,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간다면 2028년경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침몰하며 2030년경에는 초대형 교회 부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예상되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몰락할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다수의 종교학자가 21세기는 20세기의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를 뛰어넘는 종교적 체험과 초월적 영성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특히 한국 사회는 갈수록 물질만능주의화, 기계화, 개인주의화 되기 때문에 영혼의 공허함과 소외감이 늘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종교적 안식처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의 감성적 분위기에 맞춰 신비주의적 신흥종교가

연이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존의 ‘고등종교’들도 교리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신비적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간의 경계는 허물어지면서 영성을 모토로 내세우는 영성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영성 추구의 신비주의적 종교가 대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 내에 신비주의적 분위기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미 개신교 내부에서도 ‘관상기도’란 이름 아래 이 대열에 합류해 있는 형편”이라며 “21세기의 감성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아예 감성적 분위기에 맞춰 기독교를 재편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며, 기독교가 지성적인 면을 포기해 버리면 결국 종교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기독교 안팎에서 이미 보이는 문제점의 상당한 부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리 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감성적·신비주의적 분위기에 대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목사는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에 팔복할 만한 성장을 보일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한편으로 수용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길자연 목사는 왜 총신대 총장직을 사임했나”

총회와의 관계 및 소송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



길자연 목사(오른쪽)가 지난 2013년 12월 30일 총신대 총장 취임 당시 김명우 재단이사장(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길자연 목사가 25일 총신대학교 총장직을 사임하고 재단이사회(이사장 김명우 목사)가 이를 즉각 수리한 데는, 총회(예장 합동)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 길 목사 개인의 소송 패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길 목사는 지난 2013년 12월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총장 선거에서 길 목사는 3차 투표 끝에 90표를 얻어, 상대였던 16표에 그친 박수준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단법에서의 ‘70세 정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 “만 70세가 정년이 되고, 이를 넘기면 총회 내 모든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제기했는데, 당시 길 목사의 나이가 이미 만 70세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9월 열린 예장 합동 제99회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는다”고 결의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뿐만 아니라 총회가 총신대 재단이사들의 자격도 일부 제한하면서,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까지 더욱 악화됐다. 때문에 길 목사는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스스로 결단을 내려, 총회와 총신대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기자

사역리더의 보수, 성경적 진리 따라야

사역자의 재정 투명성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회장 황오찬 교수, 이하 한재협)는 6월 27일 창립총회 후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 향상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 책임 협회(ECFA)와 큐리오스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 세션1에서 ECFA 국제 자문인 게리 호그(Gary G. Hoag) 박사(큐리오스 미국 부대표)가 ‘신실한 재정 관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 에리조나주립대 부학장 글렌 넬슨(Glen R. Nelson) 박사(큐리오스 미국 운영이사)가 ‘기독 단체의 재정 투명성’을 각각 발표했다.

게리 호그 박사는 “신약 사도들의 예에서 신실한 재정 운영에 대한 7가지 통찰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역을 위한 신실함의 기초가 된다”며 “이

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헌금과 관련된 비율 서신의 중요 주제로, 유대인-헬라인들을 하나되게 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글렌 넬슨 박사는 “사역 리더들의 보수는 성경적 진리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기독교의 증언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해야 하고, 그 이사회나 운영위원들은 보수 책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가족 관계이거나 부하 직원이어서는 안 되며,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역에 있어 재정 책임성은 모든 수입과 자산을 하나님의 지원으로 간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혹의 기회를 줄이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매직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 한함. *헤어칼라 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 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한국 이슬람, 어디까지 왔는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 7월 11일 아랍연맹이 발행하는 아랍신문(Arab League News)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약 1,0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증가 추세를 보면, 한국은 상당히 종교성을 가진 나라이다... 한국에는 현재 3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한국인의 종교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십 년 안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 중의 하나로 불리게 될 것이다.”

마치 예상이라도 한듯이 1990년부터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약 25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슬람 인구 성장 원인은 무엇일까?

1. 이민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인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 왜 외국인들이 유입되게 되었을까?

첫째, 노동인력의 부족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서서히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무렵,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산업별 노동력 이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조업 분야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되었다. 반면 가난과 실업으로 노동력을 국제시장에 배출해야 했던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판로를 찾아 나서야 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적 요구와 아시아 국가 노동인구의 요구가 서로 부합되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새로운 노동시장의 개척지 한국을 향해

밀려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부터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한국인 노동력의 수출량보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량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1990년에 약 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정착하였다.

둘째,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이다. 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한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4.53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여, 1980년 2.6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1990년 1.60명, 2000년 1.47명, 2009년 1.19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사실 1983년에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을 때 신속히 조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정책을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00-500만 정도, 2050년에는 800-1,000만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 2014년 한국의 출산율은 2.0명이었다. 매년 2.0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0년이 지나면 순수한 한국인은 21.6%밖에 남지 않는다. 여기에 유사사망률을 감안하면 순수한 한국인의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 인구의 20%가 고령화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50년이면 46%를 넘어설 것이다. 고령화는 평균생활 수준의 하락, 사회 활력 하락, 농촌 및 중소도시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는 내수시장의 침체를 가져온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한국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인 많아지기 때문이다. 1990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서 2000년에는 재한 외국인 총 수가 2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0.44%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증가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드디어 1%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3월 말 181만 3,037명을 기록, 4,920만 명인 국



유 해 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내 총인구의 3.5%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중에 51%가 이주노동자들이다. 저출산과 3D 업종 기피현상, 고령화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 명)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구를 수입해야 한다는 예측 등, 외국인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는 한류, 경제교류, 관광, 또한 한국 선교를 위하여 무슬림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혹자는 중동이 한국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슬람화한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2억 4천만), 파키스탄(1억 9천만), 방글라데시(1억 6천만)이며, 인도의 무슬림 또한 1억 6천만 명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 인접국이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70%는 아시아에 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다.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 연수와 일반 연수생을 제외하고 2006년에 1,466명에서 2011년 12월 3,841명으로 2006년 대비 26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 다산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Abu Dawood, Nisai and Hakim)고 말하였다. 또한 꾸란은 독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독신자는 결혼할지이다.”(꾸란 24:32) 따라서 무슬림은 모두 결혼하며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늘고 있다. 이외에도 꾸란의 명령(꾸란 4:3)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부다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네 명의 부인 이외에도 ‘오른손이 소유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하녀들과의 관계는 산아제한이 없는 이슬람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를 가지고 왔으며, 영국의 경우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의 자녀를 낳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평균 6명을 낳는다. 조희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2012년 한국에는 무슬림의

자녀들이 약 4,000명 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슬림 여성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무슬림 2세대는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3. 결혼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지만(꾸란 2:221),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유대인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꾸란 5:6). 한국에는 무슬림이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꾸란에 의하면 유대인·기독교인·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유대인 여성이 거의 없다. 무슬림 여성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타종교의 여성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는다. 유대교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반면, 이슬람에서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자녀가 무슬림이 된다. 이들 자녀들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이 되어 이슬람의 인구 성장에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중동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는데, 아버지의 종교를 자녀의 종교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영국 여인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무슬림 남편은 아이들을 이슬람권으로 보내서 무슬림으로 성장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 이에 부인들이 자녀들을 찾으러 남편의 나라에 갔다가, 유괴범으로 체포되어 그 나라 감옥에 갇히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6월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보면,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국제결혼 비자 체류자는 14만 8,746명이다. 이 가운데 주요 12개의 이슬람 국가 출신이 모두 4,935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요 12개의 이슬람 국가만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원국은 57개국에 달하며, 회원국에는 속하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무슬림인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온 무슬림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한 내국인들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국내 무슬림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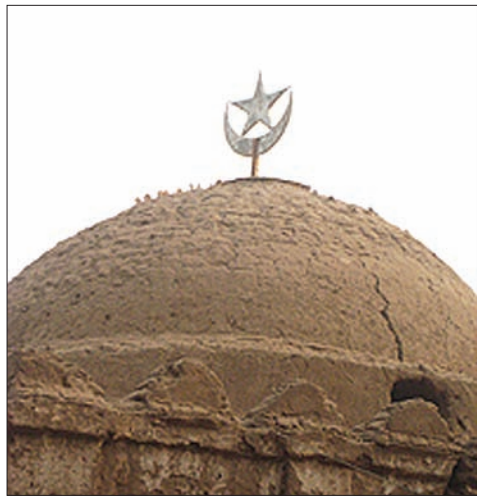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중동이 비잔틴 기독교 제국일 당시 이슬람 군대가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하자,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서 ‘딤

미’(Dhimma)라고 불리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불평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발적인 개종이 늘고 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유는 이슬람의 교리가 기독교에 비하여 쉽게 되어 있고, 무슬림들이 전투적인 선교 활동을 하며, 이슬람 문화에 대해 동경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한국인 이슬람 인구가 개종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70년에 한국인 이슬람 인구는 3,700명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한남동 시유지를 주어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한남동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이 완성되면서 이슬람 인구는 1만 5천 명으로 늘었다. 2005년에 4만 명이었던 한국인 이슬람 인구는, 2009년에 7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약 1만 명의 영국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프랑스의 경우 약 4천 명, 한국에서는 약 7천 5백 명이 매년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1930년 2억 3백만 명이었던 이슬람 인구는 현재 16억이 되었고, 2030년에는 22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현재는 약 25만 명이지만, 10년 안에 100만 명에 육박하고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종교 상황에서 1988년 아랍 신문 기사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불행하게도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그 길을 향하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이다. 이는 필자만의 견해가 아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 1509-64)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주해하면서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교개혁자 블링거(H. Bullinger, 1504-1575)는 “이슬람의 발흥과 성공의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악한 삶이 있다”고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듯이 이슬람의 도전 앞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을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더불어 한국으로 이주하는 무슬림에 대한 적절한 선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 25만 명의 무슬림 공동체는 한국 안에서의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으로 소리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FIM국제선교회 제공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려가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고치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영혼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송로구 이화빌딩 6 • TEL : 747-1004(대)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ers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1 *2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이슬람 끌어안기

조르주 후스니 | 콤란출판사 | 280쪽

좀처럼 넘기 힘든 장벽으로 막혀 있는 듯한 이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통로'를 제시한다. 이는 국내에 들어온 1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들 중 20만여 명이 무슬림이라는 것. 이들 대다수는 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층이다. 레바논 출신인 저자는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말한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김기석 | 꽃자리 | 327쪽

요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9편과 다른 성서 에세이 9편을 전후로 배치하고 있다. 전자가 경어체로 발견과 각성, 권면과 기원의 형식을 좇아 요한복음의 행간을 헤집는다면, 후자는 평어체로 분석과 해석, 묵상과 성찰의 방식에 따라 본문을 조명한다.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동서양 고전과 영성가의 명언, 여러 시구를 인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오롯이 펼쳐놓는다.



구약 성서 이야기

헨드릭 W. 반 룬 | 보물창고 | 344쪽

어린이·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들을 엄선해 내고 있는 '1218 보물창고 시리즈' 열네 번째 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역사학자·문화사가·기자였던 저자가 두 아들을 위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썼다. 방대한 구약 내용을 한 줄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도록 엮었으며, 종교의 경전에 앞서 서양 문명의 근간이자 현대 철학의 바탕으로 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겼다.



팔복

김하영 | 나다북스 | 140쪽

인간의 공통적 관심사인 '복'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조명하여, 거짓된 복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 깊이 있게 성찰한다. 팔복을 설명하는 여덟 장의 내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단계씩 깊어지는 느낌을 준다. 복에 대한 세속의 가치관 속에 시들어 가는 자신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직시하여, 영적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자 한다.



REVIEW

이스라엘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

'나' 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 근본적 변화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묻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관계가 깨어지고 삶도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대답할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데도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지극히 세밀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말이다.

신간 '하나님을 찾아서(아드폰테스)'에서 김영광 전도사는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 스물 한 살 신학생 시절에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단돈 50만 원으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간의 여행을 떠났다.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몽골, 티베트, 네팔, 인도, 파키스탄,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등 총 16개국을 육로로 지났다. 그는 자신의 영적 대여정을 책 '하나님을 찾아서'에 글과 사진으로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크리스천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첫



하나님을 찾아서
아드폰테스
김영광 | 280쪽

사랑을 잃어버린 그의 마음에는 어 느덧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져 있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보통 세

상에서 화도 못 내고 이용만 당할 것 같아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산다. 자신의 이중성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점점 지쳐갈 무렵,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로 터져 나왔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게 보여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다. 성령님은 '거기서 내가 구하는 것을 찾으리라' 하는 음성으로 그의 모험을 재촉하셨다.

지금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갈팡지팡하는 청년

들이 교회에 가득하다.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한 그들 앞에는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넘어 '칠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는 수식이 붙었다.

절망의 나락으로 밀쳐내는 시대에 청년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은 어디 있을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한 영혼이 방향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노정이 담긴 그의 삶은, 하나님께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주눅 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깨운다.

김은애 기자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

우리 집에는 20가지 이상의 화학 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세제는 친환경 무공해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가 대신 합니다.

이레 에미나 다용도 세제는 토양에서 발견한 생물에 이로운 균류를 이용하여 산화를 막는 효소를 연구 개발하여 화학제품을 대신한 친환경 다용도 세제 제품입니다.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거울,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 가꾸기를 한 개의 이레 다용도 친환경 세제로 통일하여 비용과 물을 절약할 뿐 아니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특별 사은품
이레 에미나 1 Box(1kg: 4인 가정 1년 사용량), 『밥줄』 구입하신 분에게 『생생팩 5Kg용』 1장 특별 선물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 선물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공평이, 화학물질, 갈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비누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황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빌라 사용하면 허연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2~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3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문의: Yirrh Wellbeing Co. **이레 웰빙** Tel:323)316-6815

현대인을 위한 명쾌한 '창세기' 해석

난해해서 의심가던 내용들, 근원적으로 설명해 줘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을 매우 합리적으로 해석한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천지창조와 에덴동산 편)'가 나왔다.

이 책은 현대 지식과 상식을 기반으로 창세기를 명쾌하게 해석했다. 창세기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로, 천지창조를 비롯해 인류의 시작을 소개한다. 기독교의 시작이며 매우 중요한 성경의 입문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 왔고 해석됐다.

하지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창세기는 위기에 봉착되었다. 현대인들이 창세기를 점차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창세기는 매우 모순되게 보였던 것이다. 창세기의 위기는 곧 개신교와 천주교 등 '성서를 믿는 종교'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창세기,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창세기를 해석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은 성서를 믿는 종교인들에게조차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성경의 본질을 오도하는 사이비 종교들까지 득세하기 시작했다. 교계는 창세기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냥 믿어야 할' 성경으로 치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창세기'가 처한 현실이다.

이번에 출간된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천지창조와 에덴동산 편)'는 창세기를 매우 합리적·논리적으로



현대인을 위한 창세기 임광식 해드리 | 262쪽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다.

책은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까지를 총 19편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비현실적 일 것 같은 창세기를 치밀한 논리와 물리적인 기초이론으로 쉽게 설명해 간다.

창세기의 오해를 풀어내다

책은 천지창조라는 비과학을 물리적인 논리로 설명한다. 창조의 순서와 연대를 포함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만물의 발생과 변화를 근원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책은 '선악과와 죄의 등장'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모순들을 다루어낸다. 저자는 3장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세기 가운데 특히 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진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에덴동산을 침범할 때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을 방임하셨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가에도 의심이 생긴다."

이 책은 성경의 난해한 질문들을 피해가지 않고 본질적인 답을 찾아낸다. 책을 읽다 보면 누구도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저자는 창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창세기는 존재와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해로 영겨져 진리처럼 보이지 않았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풀리면 창세기와 존재가 서로를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모순된 세상, 삶과 죽음, 그리고 영의 세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그 동안 성경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서적이 될 것이다. 김은애 기자

당신의 결혼생활, 지켜낼 가치 있다

위기에 처한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 제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게리 채프먼 생명의말씀사 | 192쪽

얼굴만 봐도 미소가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지고 비난이 오가는 부부, 서로 대화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부, 한쪽은 집안 문제를 처리하느라 진이 빠지는데 다른 한쪽은 나 몰라라 무관심한 부부,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부부.

이들 가운데 어느 부부도 결혼할 당시에는 이러한 결혼생활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부부들은 이런 고민에 직면한다.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모습이 결혼할 당시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인가? 내가 꿈꾼 결혼생활이 이런 모습이었는가?

저서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한 '상담가' 게리 채프먼이 위기에 처한 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책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명의말씀사'를 통해 내놔다.

저자는 많은 부부가 결혼생활에 실패한 원인을 자신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에 있다고 보고 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결혼생활의 위기를 어떻게 서로 화해하여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부부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채프먼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혼생활에 대해 당신이 품은 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 경청과 이해, 훈련

을 거쳐 화해를 위해 분투한다면, 그 꿈이 실현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혼생활에 갈등이 심해질 때, 많은 부부가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화해'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혼'은 잘못된 길이며, '화해', 즉 '부부의 하나 됨'이라는 길이 돌아가길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한다.

물론 '부부의 하나 됨'으로 향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다. 결혼생활을 끝내야 할지를 고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부부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과 노력, 분투가 필요하다.

하지만 채프먼은 "당신의 결혼생활은 그만한 노력을 들이는 것이 마땅할 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분투를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친근하면서도 노련한 상담가인 게리 채프먼은 50년에 가까운 결혼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 이 책은 1992년에 출간된 이후부터 줄곧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40여 개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또 이와 관련한 그의 강의는 200여 개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전달되고 있다.

휘튼대학교와 웨이크포레스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고, 이후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와 듀크대학교에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마쳤다.

그의 저서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시작으로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집안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결혼생활의 사계절』,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12가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9가지 포인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상담 전문가인 제니퍼 토머스와의 합작 『5가지 사과의 언어』를, 경영 컨설턴트 폴 화이트와 합작 『5가지 칭찬의 언어』 등을 썼다.

장세규 기자

"기독교는 길 위에서 움직이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길 위의 신학' 담아

성지순례나 단기선교를 떠나 본 이들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 봤을 법한 질문이 이 책의 제목이다. 보통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성지순례는 그 자체가 관광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 자체가 삶을 돌아보고 나의 자리를 점검하는 순례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시작되어 제주도에서 꽃을 피워 전국으로 퍼져나간 '올레길' 열풍이 이를 말해준다.

독일에서 태어나 해방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독특한 이력의 저자는 여행이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단언한다. "기독교는 길 위에서 움직이는 신앙이다(히 13:14). 그러므로 여행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은유 이상이다. 다음 위치를 정하고 끊임없이 위치를 옮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핵심적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 활동



여행, 관광인가 순례인가 오르그리저 포이에마 | 159쪽

은 '(주일에)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성경 속 인물들과 역사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 따지고 보면 여행 또는 이동 자체가 지금보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당시였음에도,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서'

으로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야말로 믿음은 '모험'이자 '여행'이고, 크리스천들은 '머리 돌 곳 없이 두루 다니셨던(눅 9:58)'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저자는 관광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난민들 같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종교 관광'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꼬집어 주고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에 일본 나가사키 일대 성지들을 돌아보러 갔을 때 이 질문이 떠올라, 배낭에 이 책을 넣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비행기에서 읽은 이 가벼운 책 덕분에 가볍지만은 않았다. 성지순례 또는 올레길 걷기를 계획 중이거나 '시아'를 넓히려는 목적'의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더욱 풍성한 경험과 사유를 쌓을 토대가 될 것이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부인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약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세화자, 책자, 만수목판내 전문)
junimedia.com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 드립니다.
2. 전도용 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진행, **실고시디앨범**

전도용품 세트 1,000set (\$180)
고급으로 제작 \$150에 10매,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 시디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전도용 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각종 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용품을 포함해서 더욱 다양한 상품을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인체공학적으로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전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는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이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축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육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가족 건강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rd St.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산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Gay Marriage, Evangelicals Respond with Hope

BY RACHAEL LEE

For most evangelical Christians, Friday was a day of mixed feelings in ligh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legalize same-sex marriages across all 50 states. Some engaged in heated debates on social media, while some stood back and watched them unfold. Individuals on both sides of the debate have lost friends and acquaintances over the last few days.

In response to these events, evangelical leaders encouraged Christians not to "cave nor panic," in the words of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an do many things, but the Supreme Court cannot get Jesus back in that tomb," Moore wrote in a piece posted by the Washington Post. "Jesus of Nazareth is still alive. He is still calling the universe toward his kingdom."

Moore went on to explain that the "gospel doesn't need 'family values' to flourish," and that "in fact, the church often thrives when it is in sharp contrast to the cultures around it," he said.

In a similar tone, Albert Mohler,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aid that though the laws on marriage may have changed, "God's truth has not changed. The Holy Scriptures have not chang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s not changed. The church's mission has not changed.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Evangelicals have also expressed their resolve to hold on to their beliefs despite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o live out these beliefs.

"We won't marry two men. That goes against our beliefs," Reverend Wilfredo De Jesús, the senior pastor of New Life Covenant Church, told the New York Times.

"We're prepared to go to prison,

or whatever occurs, but the church cannot change," he added.

Over 100 evangelicals signed a declaration that expressed their affirmation of the traditional view of marriage, including Alistair Begg of Parkside Church; Carmen Fowler LaBerge of the Presbyterian Lay Committee; Naghmeh Abedini, who has been advocating for her imprisoned husband, Pastor Saeed Abedini; and Trip Lee, who is most well-known for his career as a Christian rapper.

"While we believe the Supreme Court has erred in its ruling, we pledge to stand steadfastly, faithfully witnessing to the biblical teaching that marriage is the chief cornerstone of society, designed to unite men, women, and children," said the statement. "We promise to proclaim and live this truth at all costs, with convictions that are communicated with kindness and love."

Many evangelicals have called this period an opportunity. An opportunity to "serve as a light in a dark place," according to Russell Moore. "A faithful opportunity to shine for the gospel," in the words of Rosaria Butterfield and Christopher Yuan, both who wrote books on sexuality. An opportunity to "put our trust in him," Marshall Segal, a contributor of Desiring God, an evangelical blog, said.

"We praise God for the opportunity to shine a light on His divine plan for the family during the years ahead," said Jim Daly, the president and CEO of Focus on the Family, a Christian broadcast that hones in on family issues.

"In the days to come, we must remember to season our words with salt," Daly continued. "It's time to be a light in these dark times. It is not time to be combative and caustic. Now, more than ever, we must emulate Jesus Christ. We must continue to show that loving kindness as we talk with our neighbors and friends who see this issue differently."



Estée Song and Connie Chung Joe shared KFFI hopes to provide 300 sets of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for children in foster homes.

Stocking Up for the New School Year: A Backpack Drive for Children of Foster Families

BY JUNHYEONG KIM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s awaiting those who will provide the gifts of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children of foster families. The organization that has embraced many of the hurts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by addressing issues such as domestic violence has hosted a backpack drive since 2014.

The backpack drive aims to give new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children in foster homes that are undergoing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are several ways a potential supporter can participate. One can donate \$50 to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which would provide a child with a \$25 backpack, and \$25 worth of school supplies. A supporter could also personally buy backpacks and supplies and bring them to KFAM.

Some of the required school supplies include a pen, pencil, eraser, pencil sharpener, 3-ring binder, ruler, and scissors, among others.

Estée Song, the project manager of the Korean Foster Family Initiative (KFFI) of KFAM, said, "Students who start the school year with ragged backpacks or old school supplies are often treated badly by other peers, or even bullied."

"We encourage the Korean community to take part in this event and share their love," Song added.

Currently, some 60 Korean children are under the Los Angeles County'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the office of which is located in Covina. The backpack drive aims to provide the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not only to Korean students, but to Asian students in general who are under the LA DCFS.

Last year, KFAM set a goal to provide 100 backpacks with school supplies, but were able to provide 336. As a result, they decided to set the bar high this year to 300 backpacks with supplies.

"Last year, we thought we wouldn't be able to reach our goal of 100 sets of backpacks and sup-

plies, but with the warm generosity of the Korean community, we were able to go way beyond that and provide over 300 sets. So we set a higher goal this year," said Connie Chung Joe, the executive director of KFAM.

"Those who want to participate can do so by giving us the funds, but I think it would be even more meaningful of parents with their children went and personally bought the backpacks and school supplies to give to the children," Joe added.

Those who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drive can do so until the July 31st deadline, and can send funds to 3727 W. 6th St. #320, Los Angeles, CA, 90020. Funds in checks should be payable to "KFAM," and should have "backpack drive" in the memo line. Funds can also be delivered online at www.kfamla.org.

KFAM, which began in 1983, focuses on strengthening Korean American families in Los Angeles through counseling,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XII:

The Secret to Bridging the Inter-Generational Gap in the Immigrant Church



Rev. Dr. Siang-Yang Tan is the senior pastor of First Evangelical Church.

BY RACHAEL LEE

Reverend Dr. Siang-Yang Tan is a Professor of Psychology in th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e is most well-known for his work in psychology, as he has written numerous books and articles on lay counseling, religious psychotherapy,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intrapersonal integration and spirituality, among other topics.

But apart from his work in psychology and counseling, Tan is also the senior pastor of First Evangelical Church in Glendale, California, and has been serving as the senior pastor for some 20 years. His church is unique and unusual for a Chinese church in that the English congregation is much larger than the Mandarin or Cantonese congregations, and also that Reverend Tan is a primarily English-speaking senior pastor, rather than Mandarin or Cantonese.

Similar to the Korean American

church, the Chinese American church often experiences difficulties between generations due to cultural and language differences. But Tan says that, as the senior pastor, he tries his best to accommodate to all congregations' needs, and to empower all three congregations.

"All of our pastoral meetings are conducted in English," Tan said, giving one example.

"But the Chinese pastors need more time to understand everything that I'm saying. So I make sure to take my time and sometimes pause to ask if everyone's understanding me and if we're all on the same page," he added.

Indeed, Tan said that the role of the senior pastor is especially important in a bicultural, multi-generational immigrant church.

"The senior pastor needs to be culturally sensitive to everyone," Tan added.

"The senior pastor must really believe in the next generation

and make sacrifices. We must not control so much—give them some more space and be a little more flexible."

"We need to believe in the young people and realize, OK, my generation is going to die out, and the future lies in the next generation," Tan continued. "We need to empower them and even have them on the church leadership board so that their generation can be represented, that they can have a say and a voice in how church matters are run."

Though Tan himself is also of the older generation, he says he's still in touch with the culture of the younger generation because he spends time with them and personally mentors them.

"I meet with someone different almost every week for breakfast or lunch. I hang out with them because they are the key people in the body. I pour my heart into them, pray for them, and affirm them," Tan said.

Meanwhile, Tan emphasiz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must also express humility and respect toward the older generation.

"Learn to be grateful for your forefathers," Tan said. "The older generation poured out many prayers, blood, sweat, and tears to establish the church and to raise you up. Don't be self-centered, don't only demand, and don't fall into a sense of entitlement."

"The older generation needs to release and let go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affirm them, and the younger generation needs to appreciate the older," he added.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Tan said that he and his church have been doing certain events with the entire church together, such as having combined

prayer meetings three times a year, and a combined retreat once every few years. The annual English retreat is also inter-generational, bringing together people of all ages, especially in small groups, for sharing and prayer.

"At the combined and English retreats especially, I see that the younger people are able to get to know the older generation much better, and the older also gets to know the younger on a deeper level," Tan said.

"We need to agape love one another. God is agape, and without agape, everything is ... meaningless."

First Evangelical Church also does a "breakthrough weekend" as the start of their discipleship training, during which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training spend a day retreat at Tan's home. Though the different congregations have separate breakthrough weekends and discipleship trainings, the material (Discipleship Essentials by Greg Ogden) that they go through is the same, and they are thus grounded on the same foundations.

Reverend Dr. Donald Chia, the pastor of family life ministries at First Evangelical, teaches Sunday school every week, and covers marriage and family topics, during which parents are able to learn how to understand their children's generation.

Chia also does visitations, pre-marital counseling, marital and family counseling, and parent-teen seminars with the youth pastor Reverend Donn Halla, through

which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can come together to resolve issues and understand each other's perspectives.

Within the English congregatio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also have time to have fellowship together every Sunday in between the 9:30 AM service, during which most of the congregation consists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11:30 AM service, which is called LifeSurge, a ministry especially for the college and young adult members. 30 minutes before LifeSurge, coffee is served, and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are able to talk and share during that time.

Though these practical actions can be carried out in order to bring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closer together, Tan emphasized that ultimately, the most important and greatest component to bridging the gap is love.

"We need to agape love one another. God is agape, and without agape, everything is zero, meaningless. The Apostle Paul says in 1 Corinthians 13 that without love, you've done nothing."

"We can talk about strategies and programs, but in all of these things, the only secret to bridging the gap is God, and out of Him flows love," Tan continued. "First gen, if you really love the second gen, then you will be sacrificial and humble and understanding. Second gen, if you really love the first gen, then you will be humble and respectful and have the desire to learn from them. That's the bottom line — it's lov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